

Book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이다. 뻑뻑한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휴식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만들어 준다. 때문에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 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휴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된다. 아직도 휴가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절절매고 있거나, 쌓인 업무로 스트레스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들을 추천한다. 잠시나마 조용한 산사로 이끌어 막혔던 가슴을 뚫어주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책들이다. 고민할 것 없이 책 몇 장만 넘기면 휴식이 찾아온다.

가람의 美 알려면 스님의 생각을 가져라

여름철을 맞아 템플스테이로 휴식을 취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기 좋고, 조용한 산사에서 지내는 하루밤은 나를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템플스테이가 대중화 되면서 사찰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사찰이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는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 현대인들에게 절이란 자연 속에 묻혀 있는 휴식처요, 명승 속에 자리 잡은 관광지에 불과하다.

저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김봉렬 교수는 사찰 건축의 역사와 아름다움, 그 속에 배어 있는 정신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책을 출간했다. 김 교수는 오래된 옛 절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운 느낌의 정체에 대해 밝히고 있다.

범어사의 일주문을 드나들고,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보면서 한 없이 신비롭고 좋다는 느낌을 받지만 왜 그런지는 따져보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런 느낌이 우연이 아닌 건축적 장치에 의해 디자인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범어사의 진입로는 뛰어난 구성을 하고 있다. 수십 동의 건물들로 가득한 대가람이지만, 건축적 핵심은 바로 그 진입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3칸의 돌기둥의 일주문부터가 범상치 않다. 보통 사찰의 일주문은 단칸이지만, 이곳은 3칸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계단 위로 천왕문이 나오며, 천왕문에 올라서면 멀리 불이문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진입부의 클라이맥스이며, 한국 불교 건축이 성취한 가장 뛰어난 장면 가운데 하나이다.”(본문 19쪽)

저자는 전국의 29곳 가람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연혁이나 전체 건축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또한 가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내하지도 않으며, 불교건축 역사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는다. 다만 건축적 장면들에 숨어 있는 지형적, 교리적, 일상적 의미를 되돌아보며 가람의 참다운 가치를 조명할 뿐이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가람의 주역들은 관광객도, 재가불가도 아닌 그곳에 주석하는 수행하는 스님들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찰들의 자리를 잡고 건축을 설계한 이들은 다름 아닌 스님들이었고, 긴 세월 가람을 지키고 가꾸은 이들 역시 스님들이었다. 따라서 가람의 진정한 건축적 의미를 찾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의도를 읽어내야 한다.”

백 개의 사찰이 있다면 백 개의 형식이 있을 정도로, 사찰은 저마다 지형과 교리에 따라 각각의 개성을 드러낸다. 대웅전은 어디에 둘지, 산문은 어디에 둘지, 건물들의 배열을 어디에 할지 등은 앞산과 뒷산, 계곡과 물줄기에 따라 달라진다. 화려한 단청이나 거대한 불상과 법당은 단지 허상에 불과하다. 강산의 지형에 따라 새롭게 디자인 된 가람들의 모습은 하나의 종교적 표상이자, 건축적 경건이며, 신앙의 거대한 만다라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책은 2002년에 첫 출간됐었다. 책이 10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불교 사진의 대가인 관조 스님(1943~2006)의 사진들이 동반



천왕문을 지나 불이문으로 이르는 길은 짧지만 길고, 굽었으니 곧아 보이는 골도 모를 계단이 계속된다. 이 장면은 한국 불교 건축이 성취한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한국적 미학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2010년 12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한 범어사 천왕문은 전소했다.)

된 덕분이기도 했다. 스님은 본래 수행자로 마음공부에 매달리고자 아끼던 사진장비를 모두 처분했었지만, 김봉렬 교수의 글을 읽고 카메라를 다시 장만해 사진 작업을 시작했다.

김 교수와 관조 스님이 만들어낸 책은 사람들에게

“우리 땅에 이런 건축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사찰 건축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과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는 책이다.

기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 김봉렬 지음 | 관조 사진컬러그라피 펴냄 | 2만원 이은정 기자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

절집에 들어서면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절집에서 만나는 무수한 유형들은 교리적으로나 역사 문화 예술적으로나 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저자는 지혜장과 나팔수라는 가상 부부를 만들어 절집을 두루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조금씩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유형과 무형의 가르침이 융해돼 있는 절집을 보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충분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 말한다.

임연태 지음 | 이승현 사진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3800원



인연 언젠가 만날

자신이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하고 저자는 그 길로 히말라야로 떠난다. 히말라야 점점산중의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 마을에 위치한 누부라 밸리에는 사진 속 주인공인 스칼장 아몽이 살고 있다.

저자는 인도 라다크에서 만나게 된 풍광,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담 등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 보릿가루 식사, 10루피가 가져다 주는 작은 행복들에서 저자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현재 자신의 고통스럽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히말라야에서 깨닫게 되며 작은 것에 행복할 줄 아는 삶을 찾는다.

이해선 지음 | 품의지도 펴냄 | 1만4000원



스님이 풀어낸 근원적 고통과 깨달음의 갈무리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승한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1만5000원

고통의 시대. 고도산업사회에서 막대한 압박을 받으며 없는 치열한 경쟁으로 상처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외로운 영혼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어느 때보다 위로와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 명상, 운동, 글쓰기, 여행 등이 급부상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가평 대원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지도하는 승한 스님은 이 시대의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일종의 감성치유 에세이를 펴냈다. 기존 여행서들과

달리 책은 산사기행에서 얻은 수많은 감성 치유법을 두루 아우른 책이다. 길을 떠난 스님은 산사의 풍광과, 그 절에 깃든 옛 스님들의 발자취, 절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낸다. 스님은 절에서 하루 밤을 보내고, 예불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산사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수행이며 내면 깊은 곳에 꼭꼭 숨겨둔 상처를 드러내는 치유 방법임을 깨닫는다.

승한 스님은 수행자 이전에 서울신문 신춘문예,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시에 등단할 정도로 유명한 시인이었다. 한 때 알코올 중독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낸 적도 있었던 스님은 스님이기에 전에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이었다. 서울 도봉산 석굴암을 시작으로 순천 조계산 송광사까지 전국 24개의 산사를 순례를 책은 산사기행을 통해 근원적 고통과 깨달음의 갈무리를 풀어 놓았다. 시인의 감수성과 수행자의 통찰력이 만나 사찰의 역사와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져 있다.

이은정 기자

즐거움과 활력소를 절집 숲에서 찾아보기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지음 | 운주사 펴냄 2만3000원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마음과 정신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물질적 풍요만을 좇아온 현대인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산림학자인 전영우 교수는 그 대안을 바로 ‘절집 숲’에서 찾고 있다. 숲은 이제 문명병으로 고통 받는 현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치유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마음의 평화와 풍요를 제공하는 절집 숲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태소息的 대상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다.

저자는 3년 동안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니며 사찰의 숲과 나무가 간직하고 지켜온 역사와 선조들의 삶, 그것들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말하고 있다. 왜 절집에서는 소나무 숲을 쉽게 볼 수 있을까, 가장 넓은 사찰림을 가진 절집은 어디일까, 봄의 파릇파릇한 생동감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절집 숲은 어디일까, 걷기 좋고 한적한 숲길은 어디일까 등등 무심코 지나치는 절집의 나무와 숲의 이야기에 대해 말하며, 인문학적 시각과 생태학적 상상력을 일깨워준다.

각기 다른 풍취와 생태와 역사를 지닌 절집 숲은 현대인의 일상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참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자, 느낌과 비움을 체험하고 자연과 교감·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7~8/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3	힘내라 청춘	법륜	정토
4	무비 스님 직지 강설(상)	무비	불광출판사
5	현재 이 순간에 머물기	인경	명상선언연구원
6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	전영우	운주사
7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불광출판사
8	하루 한 가지 마음공부법	우학	조화로운산
9	복을 부르는 부처님 말씀	진현중	토피즈
10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불기 닦는일 힘드시죠!!
쉽고 빠르게 깨끗하게...
친환경 다목적 금속광택제 이지 골드

EASY GOLD

▶ 쾌대, 향로, 위패, 유기, 제기, 돛쇠, 은, 동, 신주 등 모든 금속류

특징

-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타제품 보다 닦기가 쉬워 시간이 절반이상 절약됩니다.
- 코팅 광택약이러서 출집이 나지 않고 광택도 오래 유지됩니다.
- 습기에 강해 광택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 인체에 해롭지 않게 피부보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일상사 홈페이지 참조 www.yiss.co.kr
문의 070-8262-9291. 010-5462-3620

영일상사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각초, 홍남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하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제거방법'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열기 차단 아이스크롤 스카프
더위탈출! COOL-SCARF

“물에 3~10분 담가 목, 머리, 팔목을 하루 종일 시원하게”

여름철 **사찰법회, 수련회, 여름불교학교 등 야외 활동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이스스크랩란?
스카프 내부에 아이스크림 냉매가 들어있어 물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락이오양을 한 스카프는 목외에도 헤어밴드나 아대처럼 다른 부위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방법

1. 쿨스카프를 물에 넣어 알맹이가 들어있는 부분을 물에 담급니다.
2. 3~10분 담가놓으면 아이스크림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펴줍니다.
3. 동글게 팽창한 후에 물기를 살짝 닦아 목, 머리, 손목에 묶어 사용합니다.

- 냉장실에 넣어 두었다 사용하시면 더욱 오래갑니다.
- 지나치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시고, 세탁은 손세탁 하십시오.

- 소 재 :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면
- 내용물 : 고분자 아이스크림
- 사이즈 : 길이 108cm, 폭 5.5cm, 냉각부분 43cm
- 무 게 : 16~20g, 사용시 중량 200g

30개 이상 주문가능 (택배비 없음)
일반형 4,000원 (시중가 5,000원)
고급형 5,000원 (시중가 6,000원)
※주문하실 때 상품번호(예, 고급형 A형)를 알려주세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